

방통위, 지역과 세계 잇는 콘텐츠 교류협력 지원

- 8일,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11월 8일(수),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내·외 지역 방송사가 함께하는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공동제작과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 20개 지역 방송사와 해외 6개국* 10개 방송 관계사가 참여하였다.

* 러시아(Sibinformburo), 베트남(Vnews, VTV), 영국(TVF International), 일본(TV Aichi, TV Osaka, JCTV), 튀르키예(ATV, TRT), 프랑스(Babel Doc)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은 ‘피지컬 : 100’의 제작자 윤권수 프로듀서가 「신기술과 미디어 융합을 통한 고품질 신유형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제작 사례를 발표하였고, 부산 문화방송 이성규 프로듀서는 일본 규슈 아사히방송(KBC)와의 공동제작 프로그램 ‘우리 집으로 와’의 제작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방통위가 제작지원한 우수 프로그램 상영 및 국내외 방송사별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되었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 19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로 국내 지역방송사들이 해외 방송사들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넘어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방통위는 지역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좌미애 (02-2110-1450)
		담당자	사무관	윤영란 (02-2110-1451)